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10월 21일(주일) 제1217호



사진은 지난해 부흥축제 'ReFORM'.

10월 24~26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주강사 <래디컬> 저자 데이비드 플랫 목사

드디어 이번 주 2018 온누리 부흥 축제 '바른성공'이 막 오른다. 10월 24일(수)부터 26일(금)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이어진다.

이번 부흥축제 주제는 '바른성공'이다. 교육 수준, 직위, 재산 규모 등으로 성공을 판단하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를 깨닫

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흥축제 '바른성공'에서는 오전 집회, 오후 특강, 저녁 간증 및 집회가 진행된다. 주강사는 데이비드 플랫(맥린바이블교회 담임) 목사이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 사흘 동안 총 6번 강의를 한다.

10월 24일 오전 '교회 안에서의 성공 1(기도, 전도, 제자의 삶)', 저

녁 '기만과 속임의 위험', 25일 오전 '교회 안에서의 성공 2(멤버십, 리더십, 공동체생활)', 저녁 '변영의 우상', 26일 오전 '교회 안에서의 성공 3(예배, 성례, 헌금, 선교)', 저녁 '선교의 긴급성'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 엘라바마주에 소재한 브룩힐즈교회를 섬겼고, 지금은 버지니아주에 있는 맥린

바이블교회를 섬기고 있다. 미국 남침례교회 국제선교이사회(International Mission Board, IMB) 회장도 맡고 있다. 저서는 <래디컬>, <래디컬 투게더>, <카운터 컬처>, <팔로우 미>(두란노) 등이 있다.

부흥축제 바른성공에서 진행되는 특강도 풍성하다. 24일 오후 모건 잭슨(FCBH 부회장) 'FCBH 사역과 열매', 25일 오후 박현우(이노레드 대표)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26일 오후 영화 '파파 오랑후탄'을 상영한다.

저녁 집회는 모든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는 오픈집회로 진행된다.

24일과 26일 저녁집회에서는 이영표 집사(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와 김영애 권사(<갈대상자> 저자)가 간증한다.

부흥축제 '바른성공'에 참가신청은 24일까지다. 회비는 2만 원이다. 집회 기간 동안 교회 주차장 이용이 제한된다. 대중교통이나 교회로 오는 셔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셔틀은 교회 정문과 이촌역 4번 출구에서 오전 8시~10시 30분, 오후 3시~4시, 오후 6시~8시, 오후 9시~10시 운행한다.

문의: 02-3215-3354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오늘은 '일대일데이'

서빙고 이천만광장에서 기념행사

오늘(21일)은 일대일데이다. 온누리교회의 대표적인 양육 프로그램인 일대일 제자양육의 유익과 필요성을 되새기고, 일대일 제자양육이 더 멀리, 더 넓게 뻗어나가도록 소망하는 뜻 깊은 날이다.

일대일사역팀과 어린이일대일사역팀은 일대일데이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행사를 오늘(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에서 개최한다. 일대일데이 행사에서는 다트게임, 성구읽기 게임, 서약문 작성, 사진 촬영, 우수 양육자 블레싱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양재 온누리교회는 11월 25일, 강동 온누리교회는 11월 11일 일대일데이 행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권찬송 기자

“다음세대 응원단을 모집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차세대 교사 모집

2019 차세대 교사 모집행사가 '다음세대 응원단을 모집합니다'를 주제로 오늘(21일)과 다음 주일(28일)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현재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는 최소 474명(서빙고 109명, 양재 98명, 도곡 35명, 부천 53명, 수원 45명, 대전 37명, 남양주 30명, 인천 32명, 강동 10명, 평택 5명, 양지 20명)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예배공동체 사랑부에서도 교사를 모집한다. 사랑부

교사는 최소 42명(서빙고 19명, 양재 5명, 부천 5명, 인천 3명, 강동 10명)이 더 필요하다. 사랑챔버(바이올린, 비올라, 더블베이스, 트럼펫)와 온사랑합창단(성악, 피아노, 작곡, 사회복지사)도 교사를 모집한다.

차세대 교사 대상은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자 세례를 받은 성도이다. 신청은 서빙고, 양재, 도곡교육관 로비에 설치되는 차세대 교사 홍보부스에서 하면 된다. 나머지 캠퍼스는 10월 말과 11월에 자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차세대 교사로 지원한 성도들은 '신입교사 사명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신입교사 사명교육은 서빙고 목요일 11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서빙고 토요일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양재와 도곡화요반은 11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서빙고 02-3215-3521

양재 02-570-7436

사랑부 02-3215-3268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온통 전도이야기뿐이다. 자나 깨나 전도만 생각한다더니 정말 그렇다. 장경문 장로(양천공동체) 말이다. 장 장로는 1년 365일 매일 어떻게 전도할까, 또 어떻게 하면 전도에 대한 선입견을 깨뜨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기도한다. 누가 보면 전도담당 전임사역자 같지만 아니다. 장 장로는 내과의사다. 병원에서도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치료와 전도를 병행하면서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하고 있다. 날마다 전도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바로 그 장경문 장로를 만났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전도는 내 운명

날마다 111 전도하는 ‘장경문 장로’



장경문 장로가 온누리전도학교에서 열린 강의를 하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이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도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장경문 장로는 온누리교회에서 전도하는 장로로 통한다. 온누리전도학교 전문강사이자 〈영혼을 살리는 의사〉(두란노), 〈날마다 111전도〉(두란노)의 저자이다. 전도지 〈최고의 행복〉을 제작하는 데에도 참여했을 정도로 명실상부한 전도전문가이다. 그런데 장경문 장로는 왜 전도에 올인하게 됐을까?

전도하는 부모님 보면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부모님께서 제게 전도라는 신앙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어릴 적부터 전도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전도와 사랑에 빠졌어요.”

생선장수에게는 생선냄새가 나고, 화장품 파는 사람에게서 향수냄새가 난다 했는데 장경문 장로의 부모님에게는 전도의 향기가 그윽했다. 삶으로 전도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본인도 전도자가 됐다. 장 장로는 지금도 부모님이 전도하시던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장 장로의 어머니는 늘 주일예배 시간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섰다. 그 이유는 그 주에 전도한 이들을 교회로 데려 오기 위해서였다.

“어머니는 어떤 때는 아침부터 밤까지 전도하셨어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끼니를 거를 정도로 전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장 장로의 아버지 또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한센병 환자들한테까지 전도하였다. 장 장로가 어릴 때만 해도 사람들은 한센병 환자들을 ‘문둥병자’라고 부르면서 꺼렸다. 한센병 환자들이 구걸이라도 오는 날이면 문을 걸어 잠갔다. 그런데 장 장로의 집은 달랐다. 장 장로네 집 마당에 있는 평상에서 한센병 환자들 밥을 먹곤 하였고, 그들이 교회 예배당 맨 뒤에 있는 의자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다.

“당시 성도들마저 한센병 환자들을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달랐어요. 한센병 환자들에게 본인이 입던 옷을 벗어주시기도 하였고, 비가 새는 움막을 고쳐준 적도 있어요.”

부모가 몸소 보여준 일상적이지만 열정적인 전도가 장 장로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장 장로의 아름다운 신앙이 날마다 꽃길만 걸은 것은 아니다. 위기도 있었다. 발단은 장 장로 부부의 갈등이었다. 훗날 이 갈등이 전도에 올인 하게 된 계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부부들은 당연히 사소한 문제로 싸우고 다투잖아요? 우리 부부도 그랬어요. 서로 다른 것을 나는 아내가 틀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때만 해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름 신앙이 신실하다고 자부해온 장 장로도 부부 갈등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다. 다름이 잦았다. 1997년 ‘하나님의 가정훈

련학교’에 참가하면서 그 갈등이 해소됐다.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를 통해서 서로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했더니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다.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나에게 전도의 열매가 맺혔어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교회 나가 보세요’라고 전도했어요. 신기하게 그렇게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환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의 갈등회복이 제가 전도에 올인 하는 계기가 됐어요.”

장 장로가 본격적으로 전도사역에 임한 것은 2005년 전도콜센터와 온누리전도학교를 만나고부터다. 당시 같은 공동체 자매가 자신의 남편을 전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가 병원에서 진료하면서 환자들을 전도하는 것은 길어야 2-3분이예요. 그런데 그때 그 자매님의 남편에게는 1시간 동안 전도했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등 나름대로 성경의 말씀을 전했는데 나중에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몇 마디하면 대화가 계속 끊기고... 자괴감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전도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익혔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2011년은 장 장로의 전도인생에 전환기였다. 그해 6월, 하용조 목사가 장 장로를 불러 전도에 대한 책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면

하였다.

“사실 저는 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께서 책을 쓰라고 하시니까 난감하더라고요. 제 은사는 순종이에요. 전도 학교에 지금껏 몸담고 있는 이유도 순종의 열매입니다. 하용조 목사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책을 썼어요.”

그렇게 세상에 나온 책이 〈영혼을 살리는 의사〉(두란노)다. 올해 7월에는 〈날마다 111전도〉를 펴냈다. 〈영혼을 살리는 의사〉에서는 전도 외에도 장 장로 개인의 신앙과 이력이 있다면, 〈날마다 111전도〉에서는 순전히 전도 이야기만 썼다. ‘111’은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유일하신 예수님을 전하자’는 온누리전도학교의 캐치프레이즈다. 장경문 장로가 경험한 전도사례와 노하우, 상황별 전도 멘트, 전도지 〈최고의 행복〉사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 책이 더욱 특별한 이유가 또 있다. 전도현장에서 흔히 만나는 반대 질문들(‘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불교를 믿는데요?’,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요’, ‘제사를 지내서 교회 나갈 수 없어요’ 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전도의, 전도를 위한, 전도에 의한 책이다.

장 장로는 모든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전도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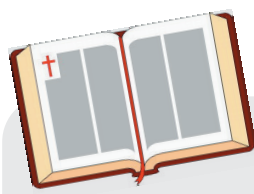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분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안다면 우리 모두 전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전도자에게도 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장 장로가 날마다 노래하는 이 좋은 전도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든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입술로 간증하든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복음)을 메시지로 전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단지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장경문 장로는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유일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 날마다 최고의 행복을 선물하는 장경문 장로가 우리가 찾던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닐까?

온누리전도학교
문의: 010-3226-4364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구원의 투구

에베소서 6:10~20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으니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주어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싸우는 중입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곧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군사가 싸우는 것은 그 군사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국가 간의 충돌, 민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전쟁에 그 일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악의 영들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자녀들을 공격하는 악의 영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이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실상을 느끼고 깨닫지만 싸우지 않고 있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완전히 행복한 상태로 살아가든지, 적과 한패입니다. 싸워서 승리를 경험하는 군사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적에게 행복한 상태로 끌려가며 지배받든지 둘 중 하나 밖에 없습니다.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해야 합니다. 또한 승리의 법칙대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도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해야 하고, 승리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승리의 법칙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승리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만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받이,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요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인 ‘진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역사의 기준이 되는 진리가 되려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입니다. 세상은 진리가 없다는 헛된 이념 속에서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고 영적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모든 무기를 허리띠에 매달아야 합니다.

의의 가슴받이는 하나님 진리의 중심에 ‘우

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의의 가슴받이를 붙이면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하늘에서 임하는 평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 하늘에서 주어집니다. 진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는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시험, 유혹, 공격이 있다할지라도 평안이라는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을 걸어가고 뛰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방패를 삼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복음을 다양한 시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

오늘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구원이라는 단어가 진부하고, 따분해졌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복음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전쟁에서 패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절실한지,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2011년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되어서 억류되었던 우리나라 선원들이 ‘아덴만 구출 작전’으로 구출되었을 때 온 국민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구출 소식이 전해졌을 때 가족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유람선을 타는 관광객들은 구명보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광객 중에서 구명보트를 보면서 감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풍랑을 만나 배가 좌초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모두 구명보트만 쳐다볼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구원이라는 단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알약 두 개를 주면서 먹으라고 하면 먹겠습니까? 반대로 병원에서 죽음과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가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라고 한다면 안 먹겠습니까? 구원이라는 단어가 살아있지 못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혹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깨닫

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명보트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약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해적에게 사로잡혀 누군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구원 받기 전의 우리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엡 2:1~3).

우리가 구원 받기 전의 상태를 가장 잘 묘사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두 가지 면에서 특이합니다. 하나는 현재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는 데 죽었다고 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래에 죽을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왜 죽어 있다고 기록했을까요? 어거스틴은 죄와 관련하여 인간의 상태를 네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에덴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의 상태입니다. 죄는 없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선택과 판단이 죄 가운데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죽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 받았을 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옮겨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 온전히 우리가 구속을 받으면 시험도 없고, 죄도 없고, 악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런 속박이 없는 자유인’이라는 설명은 틀린 말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에 끌려 사는 존재요, 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인간의 실재입니다. 무엇인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최근 어떤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 마법 숭배자들이 150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장로교 PCUSA의 성도 숫자가 140만 명인데 그것을 넘는 숫자입니다. 캐릭터킷에 있는 트리니티 컬리지의 분석에 의하면 마법 숭배자들이 1990년 8천 명, 2008년에 34만 명이었는데 불과 10년 만에 10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숫자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홀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를 ‘이 세상 풍속을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이 세 가지 영역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뉴욕 주에서는 제3의 성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성을 자기가 선택합니까? 만일 우리나라에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제도나 법이 주어진다면 우리 모두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풍속을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말하면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온 어떤 과학이나 문명이나 제도나 법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늘에 계시고, 인간 밖에 계신, 인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사랑의 자녀로

“그러나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13면에 계속)

자연보호하고, 자원 아끼는 것도 사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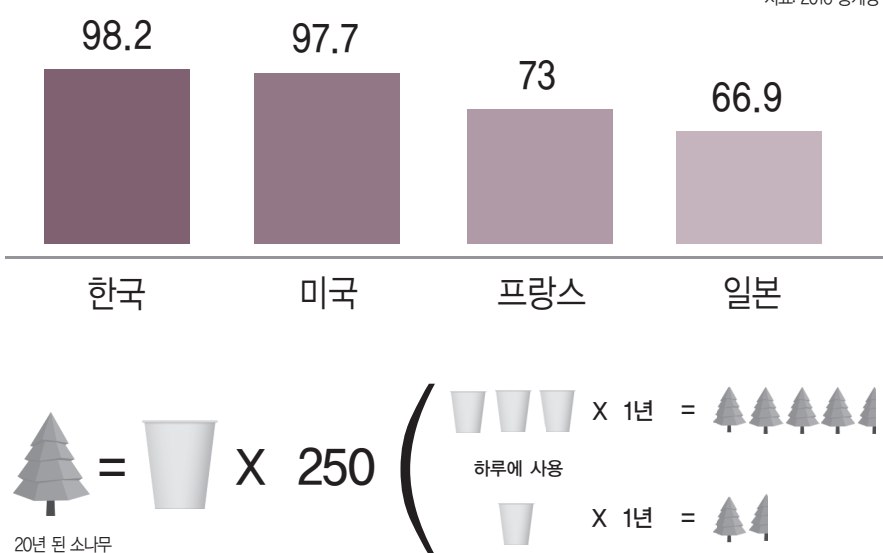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탄소배출 줄이는 생활 속 실천운동 종이컵,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 줄이고, 대중교통, 카풀 늘리고

전도와 선교만이 크리스천의 사명이 아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아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명이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크리스천들도 자연을 훼손하고, 자원을 남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교회에서 배출하는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만 해도 상당하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아껴야 한다.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자연보호운동이 없는지 취재했는데 이미 자연보호와 자원 아껴쓰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성도들과 공동체가 꽤 있었다. 그 사례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연보호 운동을 소개한다.

/ 김영선, 이소정 기자

국가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단위: kg)

자료: 2016 통계청



연일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다.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넓어지는 사막, 녹아가는 빙하 등 좋은 소식은 별로 없다. 이럴 때일수록 크리스천들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아껴 써야 한다.

창세기 1장 28절부터 30절은 “인간들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온갖 나무들을 양식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의 참 뜻은 ‘자연에 맡아 돌보는 청지기가 되라’는 의미다. 그런데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자연을 인간의 필요에 의한 부산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아껴 쓰자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유난 떠는 사람 취급해서도 안 된다.

“100년 후에는 나는 죽어서 없어”, “전문가들이나 하는 일이지”, “유난 떨지 말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완전히 틀린 생각이다. 남용하고 과용하는 인간의 욕심은 반드시 재앙이 되어서 되돌아온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아껴 쓰는 방법이 무엇일까? 거창하지 않아도 꽤 유

용한 방법이 무궁무진하다. 생활 속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사소한 일들이다.

일단 자연과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고, 자원을 아껴 써야 한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그 의식이 바로 청지기 의식이다. 여기에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먹을 만큼만 음식 만들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을 실천하면 된다. 너무나 상식적인 정보 같지만 그만큼 쉽고 효과적인 방법도 없다.

종이컵 쓸수록 미세먼지 많아진다

가을하면 구름한 점 없는 높은 하늘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 맑은 하늘을 마음껏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요즘 근래는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기는 하지만 언제 또 다시 미세먼지가 습격할지 아무도 모른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을 떠올려보자. 시야는 뿌옇고, 목은 칼칼하다. 결코 반가운 손님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하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그 아름답던 봄과 가을이, 아니 사계절이 잿빛 하늘로 물들어가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환경단체들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환경보호 운동도 벌이고 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미미하다.

일상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아무렇게도 많이 사용하는 종이컵만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종이컵 사용이 미세먼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다.

물론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다양하다. 그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중국 동부의 공장에서 배출하고 있는 미세먼지다. 몽골과 중국에서 가속화 되고 있는 사막화도 큰 요인이다. 종이컵은 가속화 되고 있는 사막화와 관련이 있다. 종이컵을 비롯한 종이 공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산림 자원을 소모하는 것이 사막화의 주된 원인이다. 사막이 늘어날수록 미세먼지 증가에 힘을 보태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사막화방지회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600만ha의 토지가 사막화가 되고 있다. 이는 여의도 7,143개의 넓이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사막화의 원인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인위적 요인은 무분별한 산림자원 사용과 과다한 가속 사육을 꼽을 수 있다. 20년 된 소나무 한 그루당 종이컵을 약 250개 만들 수 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종이컵 3개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1년 동안 약 44그루의 나무를 없애는 것과 같다.

내가 버린 플라스틱, 내가 다시 먹는다

종이컵만큼 자주 사용하는 게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은 두말 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정말 편리하고 간편한 물건이다. 한국 사람들의 플라스틱 사랑은 세계에서조차 알아준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98.2kg(2016년 기준)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플라스틱이 그만큼 인간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이미 너무 많은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플라스틱은 3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는 점이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오는 길에 마신 커피를 담은 플라스틱 컵은 내 아들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태어나고 죽어도 썩지 않고 존재한다.

1년에 인류가 소모하는 플라스틱 양은 2억 8

천만 톤이라고 한다. 사용되고 버려진 플라스틱은 미세하게 분해돼 생태계를 순환하거나 바다로 흘러든다. 바다로 버려진 플라스틱은 해류를 타고 한 곳에 모이게 되는데 하와이와 미국 캘리포니아 사이에 있는 태평양에는 한 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있다. 플라스틱 섬에는 매년 9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유입된다고 한다. 플라스틱 섬이야 치우면 된다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미세하게 분해돼 생태계를 순환하는 미세 플라스틱이다. 미세 플라스틱은 5mm 미만 크기의 플라스틱 조각을 뜻한다. 최근 천일염, 조개, 생선 내장 등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다. 밥상을 통해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팀에 따르면 한국의 인천 해안과 낙동강 하류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세계에서 2~3번째로 높다. 정수기와 생수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미세 플라스틱 안전지대가 없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생태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 리 없다.

가속화 되고 있는 사막화 규모와 플라스틱 섬을 떠올린다면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조차 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일상에서 쉽게 미세먼지와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할 수 있다. 매주 주일마다 교회 카페에 성도들이 북적인다. 사랑방으로 사랑받는 카페에서 음료 한 잔 씩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그때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면 된다. 사역팀이나 공동체 모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쓰고 있는 종이컵과 플라스틱을 텀블러로 바꿔도 효과는 엄청나다. 이미 이와 같은 자연보호와 자원 아껴 쓰기를 실천하고 있는 성도들과 공동체가 있다.

종이컵 대신 머그컵 사용하는 성도들

서빙고 온누리교회 주차사역팀과 양재 온누리교회 주의빛찬양사역팀은 종이컵 대신 머그컵과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주차사역팀은 지난 8월부터 종이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하고 있다. 강영희 총무가 쓰레기통에 수북하게 쌓인 종이컵을 보고 이래



일회용 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하는 서빙고 주차사역팀(좌), 텀블러를 사용하는 양재 주의빛찬양사역팀(우).



서는 안 되겠다 싶어 제안했다.

“주차사역팀원이 40명입니다. 그들이 하루에 종이컵 2개씩만 써도 일주일에 종이컵 560개가 소요됩니다. 나무 한 그루 당 종이컵 250여개가 생산되는데 우리만이라도 종이컵을 쓰지 않으면 매주 나무 두 그루 이상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종이컵을 대신할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강영희 총무는 조성수 팀장과 논의 끝에 머그컵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서빙고 온누리교회 주차사역팀 모임 장소에 가보면 팀원들의 이름이 적힌 머그컵을 사용하고 있다. 컵을 쓰지 않을 때에는 주차사역팀 사무실 중앙기둥 한쪽에 정렬해 둔다. 물론 불편함도 있다. 차를 다 마시고 나면 알아서 컵을 씻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깐의 불편함보다 장점이 훨씬 많다.

“쓰레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종이컵을 안사도 되니깐 예산도 아끼고, 머그컵에 보존 기능이 있어서 따뜻한(시원한) 음료를 오래 마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경보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주차사역팀 강영희 총무는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거창한 일을 해야만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환경을 아껴주마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양재 주의빛찬양사역팀도 환경보호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양재 온누리교회 2부 예배를 섬기고 있는 주의빛찬양사역팀은 지난 7월부터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다. 주의빛찬양사역팀의 연습실 공간에 가면 형형색색 놓인 텀블러를 쉽게 볼 수 있다. 다양한 모양과 색깔을 가진 텀블러보다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는 140여 명이나 되는 팀원들의 표정이 더 밝다. 주의빛찬양사역팀이 텀블러를 사용하게 된 것도 거창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성가대원들이 연습하면서 사용하는 종이컵 양이 너무 많고, 무심코 버리는 종이컵이 아까워서 텀블러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조금씩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다. 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게 되었고 올해 6월 말 찬양사역팀 수련회를 가기 전에 팀원들에게 텀블러를 하나씩 선물했다. 그리고 선�포했다.

“이제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

신 매주 텀블러를 가져오셔야만 음료를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어느 누구도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다.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에 모두가 공감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매주 1인당 2~3개씩 사용하던 종이컵을 전혀 쓰지 않게 되면서 매주 450여 개 정도 낭비되던 종이컵을 아끼게 되었다. 텀블러를 사용하면서 좋은 점을 발견하는 재미도 쏠쏠했다.

“텀블러에 종이컵보다 두세 배 많은 양의 음료를 담을 수 있으니깐 더 오래 마실 수 있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소프라노 조장 장현숙 권사는 교회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면서 생활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텀블러를 사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평소 생활 속에서도 환경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장보러 갈 때 꼭 장바구니를 챙깁니다.”

김진세 집사는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기 위해 더 큰 가방으로 바꾸기도 했다. 불편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다.

“세계적으로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크리스천들이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우리의 자손들도 잘 살게 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표희정 집사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온누리교회 사역팀 전체가 텀블러 사용하기 등의 작은 실천에 동참한다면 그 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나부터 실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소개한다면 환경보호 운동을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탄소배출 줄이는 ‘대중교통과 카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큼 쉽고 효과적인 환경보호도 없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탄소는 기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2015년 ‘파리기후협약’을 맺었다. 파리기후협약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자는 내용인데 탄소가 바로 대표적인 온실가스다. 자동차로 대표되는 수송용 원료가 온실가스 배출량 3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

면 국내 승용차의 탄소 배출량은 평균 198g/km다. 매일 10km거리를 왕복 출퇴근 하면 하루에 4kg의 탄소를 배출한다고 할 수 있다. 1년이면 1,460kg을 배출하는 셈이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르면 인간은 결국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PIK)에 따르면 나무를 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절대적인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EBS 다큐멘터리 ‘원더풀 사이언스’에 따르면 4인가족의 탄소배출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30년 자란 잣나무 16,500 그루가 필요하다고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카풀을 하면 탄소배출량 절감에 적극 동참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도 매 분기별 1회씩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캠페인을 통해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데 동참하고 있다. 이 같은 뜻 깊은 캠페인이 일상이 되어야 한다.

필요한 만큼 조리하고 섭취하기

음식물 쓰레기도 줄여야 한다. 필요한 만큼 조리하고 먹는 것도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는 손쉬운 방법이다. 음식물 쓰레기는 낭비일 뿐만 아니라 처리 비용까지 발생시킨다.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모으면 백두산(2,744m)에 근접하는 높이까지 쌓을 수 있다고 한다. 식재료에 대한 욕심은 큰 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을 강타한 지진·쓰나미 피해가 커진 원인 중 하나로 ‘사라진 맹그로브 숲’을 지목했다. 해안에서 생장하는 식물 맹그로브는 뛰어난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뿐 아니라 해안 지반을 지지하고 수질을 맑게 유지해서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가 된다. 맹그로브 숲이 없는 해안 지대는 태풍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2m씩 토양이 침식될 정도로 그 자체가 태풍·쓰나미의 천연 방어벽이다. 일본 교토대 조사팀은 100㎡당 맹그로브 30 그루가 밀집된 경우 쓰나미 위력이 90% 축소됐다는 연구 결과를 사이언스에 공표한 적도 있다. 전 세계 맹그로브 숲의 규모는 15만km로 한반도 면적의 3분의2 정도다. 하지만 1965년부터 2001년 사이 전 세계 맹그로브 숲의 40~50%가 사라졌다. 가장 큰 이유는 ‘블랙타이거 새우’ 양식 때문이다. 1만㎡의 맹그로브 숲이 파괴된 자리에서 생산되는 새우는 불과 0.5t이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15년 5,899억kg, 2016년 6,369억kg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음식물 폐기물 발생 장소는 가정, 소형 음식점(70%), 대형 음식점(16%), 집단급식소(10%), 유통단계(4%) 순이었다.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유통 조리과정(57%), 먹고 남긴 음식물(30%), 보관 폐기 식재료(9%), 먹지 않은 음식물(4%) 순이었다. 먹고 남긴 음식물을 제외하면 70%의 음식이 먹지도 않고 버려지고 있는 셈이다.

버려지는 식재료를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서 조리하면 상당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지난해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버린 음식물 쓰레기가 90톤가량 된다. 올해 1,2분기에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약 44톤으로 지난해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정과 교회에서부터 식재료와 음식을 낭비하지 않으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생명과 환경팀이 제안하는 ‘three zero 운동’

온누리교회에도 자연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는 사역팀이 있다. 바로 사회선교본부 소속 생명과 환경팀이다. 교회에서부터 환경보호 운동을 시작해서 가정과 사회로 뻗어나가게 하는 것이 목표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캠페인 위주로 사역을 하다 올해부터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라는 환경 보호 캠페인도 하고 있다.

생명과 환경팀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three zero운동’을 제안하고 있다. 교회 내 생활쓰레기, 플라스틱,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0으로 감축하자는 것이다. 생명과 환경팀이 제안하는 three zero를 위한 실천 운동 10가지를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제안한다.

1. 머그컵, 텀블러 사용하기
2. 장바구니 이용하기
3. 필요 목록을 작성해 정보기
4. 먹을 만큼만 요리하기
5. 먹을 만큼만 담기
6. 재활용품 사용하기
7.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기
8. 플라스틱 빨대, 접시 사용하지 않기
9. 비닐봉투 사용하지 않기
10. 비닐 우산커버 사용하지 않기

축하합니다

APC 선수위원장으로 선정된 이정민 선수

도전과 좌절 그리고 또 도전 눈물로 쓴 하나님의 역사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18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43개국 3천여 명의 선수들이 핸디캡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경쟁을 벌였다. 이 현장에서 또 다른 경기를 펼친 이가 있다. 바로 이정민 선수(장애인 조정·스키 국가대표)다. 그는 이번 장애인 아시안 게임 기간 중에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APC) 선수위원'으로 출마했다. 대회기간 내내 선수촌을 돌면서 유세를 했다. 그리고 지난 13일, 현장 선수들의 직접투표를 통해서 당당하게 선수위원(총 5명 선임)으로 당선됐을 뿐만 아니라 선수위원장으로 선정되었다.

지난 16일, 바로 그 주인공 이정민 선수를 만났다.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그의 첫인상은 무척이나 선해보였다. 거친 운동과 혹독한 훈련을 거듭한 운동선수로 보이지 않았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이정민 선수는 어릴 때만 해도 또래 아이들과 다름없이 무척이나 활발한 아이였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길랭바레증후군' (Guillain-Barre syndrome, 급성감염성다발성신경염)이라는 병을 앓았다. 길랭바레증후군은 말초신경계통의 손상으로 급격하게 근무력이 시작되는 병이다. 매년 10만 명당 2명 정도 발병하는 희귀병이다. 원인도 모르고 뚜렷한 치료법도 없다.

“어느 날 부턴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풀썩풀썩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점점 온몸에 힘이 없어졌고요. 하루는 자고 일어났는데 목을 못 들겠더라고요.”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나서야 길랭바레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마비증상이 호전돼 회복되기도 했지만 무릎 아래 부분 신경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장애판정(신체장애 3급)을 받았다.

“걷는 게 뒤통뚱뚱하고 불편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원래 성격도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이라 그런지 제 병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재광 장로(대전 온누리교회)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아들의 병마를 누구보다 힘들어했다.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많다.

“약도 없고, 뚜렷한 치료법도 없으니 병원에 서도 할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이 제가 아프면 아팠지 아들이 아픈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원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더라고요. 병원에는 기도할 데가 없어서 화장실에서 기도했어요. 좌변기 뚜껑을 덮고 앉아 마비가 되어 누워있는 아들을 위해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이재광 장로는 그 힘든 시기를 잘 견뎌준 아들이 대견하고 감사했다. 이 장로는 아들에게 제약이 많은 한국보다 더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좋겠다고 미국 유학을 권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 유학을 갔어요. 집안이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저를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해주셨어요. 아버지 덕분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보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운동회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서는 학교대표로 뽑아주더라고요. 축



장애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이정민 선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활짝 웃고 있다.

구를 하고 싶었는데 다리가 불편하다고 했더니, ‘그럼 골키퍼하면 되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부딪혀볼만 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잘 나가던 엘리트 금융맨 장애인 국가대표 조정선수가 되다

이정민 선수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꽤 괜찮은 이력을 쌓았다. 미국 명문대학 중 하나인 미시간주립대를 졸업했고, 졸업 후에는 한국 대기업의 미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했다. 2010년 한국에 귀국해서는 외국계 금융회사를 다녔다. 고소득 금융맨이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조정(漕艇, Rowing)선수가 되겠다고 잘나가던 회사를 그만뒀다. MBC 예능프로 그램 ‘무한도전’에서 방송된 조정 특집 프로그램 보고 나서다.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금융맨을 동경해서 금융회사에 취직했는데 제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가득했어요. 그러다 방송에서 조정하는 모습을 봤는데 앉아서 하는 운동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바로 저거다!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곧장 미사리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조정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운동선수, 그것도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조정이 나를 새롭게 일으키는 계기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불편한 몸으로 살면서 단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 분야에 도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뒀어요.”

물론 부모의 반대가 심했다.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남들은 들어가기 어려운 직장인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은 취미생활로만 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소용없더라고요. 고집이 어찌나 세던지...”

이재광 장로는 아들에게 너무 서운한 나머지 4개월 동안 말을 안 했단다. 그래도 어찌겠는가.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이 장로도 결국 아들의 고집에 무릎 꿇었다.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는 날 미사리에 갔어요. 1등으로 들어오는 아들을 보고 깨달았어요. ‘내가 졌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때부터 아들의 선택을 더욱 존중하게 되었어요.”

엘리트 금융맨은 그렇게 국가대표 조정 선수가 되었다.

호기롭게 시작한 운동이었지만 생각보다 힘들었다. 처음에는 후회도 많이 했다. 훈련 환경, 재정적 지원 등 모든 상황이 열악하기 지없었다. 대표팀 훈련이라고 해봤자 1년에 고작 90일밖에 안됐고, 나머지는 혼자 알아서 해야 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자괴감이었다.

“당시 제가 서른 살이었어요. 친구들은 한창 결혼하고, 아이 낳고, 회사에서 승진하는데 제 상황은 너무 암담하더라고요. 나만 혼자 다른 세상에 있는 느낌이 들고 도태되는 것 같더라고요.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견

디기 힘들었어요. 회사 다닐 때는 장애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운동 시작하고부터는 ‘장애인 운동선수’라는 말을 해야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국가대표 선수라고 해도 장애인 국가대표라고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도 견디기 힘들었고요.”

그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정말 많이 묻고 기도도 많이 했다. 눈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갔다.

“장애가 없었더라면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을 텐데 왜 나에게 장애를 주셔서 이런 선택을 하게 하시냐고 원망 섞인 하소연을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저를 성장시키셨어요. 그 덕분에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의 도전은 계속됐다. 2014년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조정 혼성종목(시범종목)에서 은메달을 따낸 그는 지경을 넓혀 2015년 스키에 도전했다. 2018 평창패럴림픽 출전을 목표로 정말 미친 듯이 훈련했다. 비록 메달을 따진 못했지만 하계와 동계 스포츠를 모두 경험한 대단한 이력의 소유자가 되었다.

이정민 선수의 도전은 계속 진행 중이다. 그는 평창패럴림픽이 끝나자마자 올해 3월부터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 박사과정을 시작했다. 박사과정 공부만으로도 바쁜 시기에 APC 선수위원으로 입후보했다. 그리고 당당하게 선수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사실 자카르타에서 여러모로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어요. 박사과정을 시작한 때라 굳이 지금 이걸 왜 해야 하는가 후회도 들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내가 축복한 사람이다, 너는 내 계획대로 잘 할 것이다’라고 용기를 주셨어요.”

남들한테 좋게 보이는 이력의 이면에는 말로 표현 못 할 고민과 고충이 가득했다. 이정민 선수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치열하게 질문했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했다.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요구한 사항들은 들어주지 않으셨지만 그걸 통해서 저를 성장시키셨어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묻게 되고, 더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힘든 것, 어려운 것, 심지어 장애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순희 언니, 57년 지기 친구가 구원받았어요”

마포공동체 맞춤형전도집회 64명 참석, 10명 결신

깊어가는 가을만큼이나 풍성한 수확이 있었다. 지난 13일 마포공동체가 개최한 맞춤형전도집회 ‘행복한 가을 나들이’에서 전도대상자 10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경기 광주시 목상의집에서 열린 이번 맞춤형전도집회에 전도대상자 64명이 참석했다. 참석율이 무려 95.5%나 됐다. 마포공동체 지체들의 뜨거운 중보기도와 헌신적인 사랑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현장에 다녀왔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마포공동체가 맞춤형전도집회에 초대된 친구, 가족, 지인들에게 복음을 선물했다.

빨갛고 노랗게 단풍을 입은 가을의 남한산성 목상의집을 거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그곳에서 천국잔치까지 열렸으니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하나님 품에 안긴 천국잔치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 그리고 눈물이 있다.

배지윤 성도는 이번 마포공동체 맞춤형전도집회에 둘째 아이(5살) 친구 엄마 이순희 씨를 초대했다. 3년 전 어린이집에서 처음 만났는데 돌도 없는 자매처럼 지낸다. 배지윤 성도는 이순희 씨와 가까워지고 친해질수록 그녀에게도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순희 언니가 가정 일로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당시 저도 신앙의 힘으로 회복을 얻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언니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소망했어요.”

배지윤 성도는 날마다 이순희 씨를 위해 기도했고 그녀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로 결심했다. 자주 식사대접을 하거나 말동무가 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노력했다. 관계가 돈독해질 무렵 때마침 공동체에서 맞춤형전도집회를 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그런데 이순희 씨를 초대할 엄

두도 못 냈다.

“하필 공동체 맞춤형전도집회 다음날 순희 언니가 소속된 마라톤 동호회에서 걷기대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공동체 맞춤형전도집회에 초대해도 단박에 거절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맞춤형전도집회를 3주 앞두고 이순희 씨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오른 쪽 복숭아뼈를 다쳤다. 당연히 마라톤대회 참석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배지윤 성도는 이순희 씨가 몹시 걱정됐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심스럽게 이순희 씨를 맞춤형전도집회에 초청했다. 이순희 씨는 흔쾌히 응했다. 이순희 씨는 목발을 짚고 맞춤형전도집회에 참석했다.

마포공동체 맞춤형전도집회는 참으로 풍성했다. CCM가수 장항자의 구수한 찬양과 이태열 장로의 색소폰 연주, 장광 장로의 절절한 간증 등 이순희씨를 비롯한 전도대상자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여는 데 이보다 좋은 프로그램은 없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면서 마포공동체 맞춤형전도집회 분위기도 무르익었다. 전도대상자들을 위한 초청자들의 깜짝 영상이 상영됐다. 배지윤 성도가 이순희 씨에게 보낸 영상편지가 상영되자 이순희 씨가 눈물을 터트렸다.

“진심이 느껴져서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정말 교회에 나가보려고요.”

김성철 집사는 나고 자란 고향 친구 김광석,

김경자 부부와 김복동, 김준순 부부를 초청했다. 그들은 57년 지기 친구들이다. 그토록 오래되고 사이가 가까웠지만 전도는 쉽지 않았다.

“군대에서 예수님 믿고 와서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깐 완강하게 거부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각자 삶이 바빠질수록 전도는 더욱 어려웠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김성철 집사는 친구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 공동체에서 맞춤형전도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에게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연락했는데 친구들이 흔쾌히 응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김성철 집사는 친구들을 공동체 맞춤형전도집회에 초대한 이후 한 달 동안 서빙고 온누리교회 1부 새벽예배를 매일 참석했다. 친구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간구하고 또 했다. 맞춤형전도집회 당일, 김광석, 김경자 부부는 전라남도 광양에서 무려 5시간이나 걸려서 맞춤형전도집회에 참석했다. 피곤하고 힘들 법도 한데 오히려 초대해 준 친구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30년 째 이어온 김성철 집사의 간절한 기도도 응답받았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집 근처에 출석할만한 교회를 찾아보려고요.”

목회칼럼



손정훈 목사
(마포공동체)

동물원에서 가장 비싼 동물이 무엇일까? 백조라고 한다. 우리들 중에도 못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몸값 높은 백조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 겉으로는 언제나 우아하고, 항상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이 형통해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떠 있기 위해 물 밑으로 검은 발을 얼마나 버둥겨려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렇게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사람들은 인간의 일생을 사계절에 비유한다. 파스한 봄날에 탄생하여 여름 한 철 눈부신 성장을 이루다가, 갑작스레 찾아오는 가을에 지난날들의 열매를 생애보다가 마침내 겨울눈을

맞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사람의 인생에서 겨울이라는 시즌이 예상하고 있던 순간에 찾아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나는 한참 여름인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겨울을 맞는 사람도 있고, 속절없이 오래 지속되는 겨울을 맞는 이들도 있다. 어느 미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유명 대사처럼 그야말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겨울은 곧 오는 것이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경조사를 접례하는 일이 많다. 어떤 때는 각각 다른 장소에서 돌잔치와 결혼식, 장례식을 치른 적이 있었다. 그때마다 만감이 교차한다. 마치 한 사람의 사계절을 담은 영화를 고속으로 상영한 듯한 초현실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입관 예배를 드릴 때면 마지막으로 고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나는 화들짝 놀란다. 머리가 대리석처럼 차갑기 때문이다. 사실 이미 영혼이 떠나간 몸은 돌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렇

“겨울이 오고 있다!”

게 육신을 떠나간 영혼은 과연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 성경은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증언한다.

한때 한마음정신회복에배공동체를 섬긴 적이 있었다. 그 때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로부터 알려주신 주제가 바로 ‘천국’이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있지 않을 것이고, 모두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메시지였다. 그래서 목상한 대로 힘차게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모두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나던 순간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그 천국에는 누가 갈 수 있을까? 우리는 낚새 나는 죄의 옷을 입고서는 거룩하신 그분께 나아갈 수 없다. 반드시 씻음을 받아야 한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십자가 위

에서 모든 죄값을 단번에 지불하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제 누구든 그를 믿을 때 천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가오는 겨울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겨울이 찾아온다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다. 사과의 씨가 떨어져 봄에 새싹을 틔우듯 우리의 영혼도 새로운 나라, 천국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천국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공동체 맞춤형전도집회를 개최했다. 멀리 광양에서부터 올라온 이, 다리에 김스를 하고 찾아온 이,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까지 참으로 다양한 이들이 참석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디 이번에도 영접하지 않았던 참석자들도 삶의 어려운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 10월의 어느 좋은 날 들었던 천국 복음을 다시 떠올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제2회 거북이 마라톤 대회

느리지만 끝까지 완주한 행복한 사람들

참가비 및 후원금 노숙인 자립자활 위한 농지마련

느리지만 끝까지 완주한 행복한 사람들을 만났다. 지난 13일 한강공원에서 열린 ‘제2회 거북이 마라톤 대회’에서 말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거북이 마라톤 대회는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느리지만 끝까지 달리면서 나눔을 실천하는 대회다. 올해 거북이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도 아주 특별했다. 산마루교회 성도인 노숙인 형제자매들, 휠체어를 타고 완주한 성도, 3대가 함께 달린 가족, 순원과 함께 달린 순장 등 500여 명이 참가했다. 거북이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은 끝까지 걷고 뛰면서 노숙인들을 돕는 귀한 땀방울을 흘렸다. 거북이 마라톤 대회 참가비 및 후원금 약 1천2백만원은 산마루교회 노숙인 자립자활을 위한 농지를 마련하는 데 사용된다. 기자도 그 뜻 깊은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걷고 뛰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미소를 띤 얼굴로 제2회 거북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출발!”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마자 거북이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이 힘차게 달려 나갔다. 강하게 내리쬐는 가을 햇볕보다 참가자 500여 명의 사랑이 더 뜨거웠다. 한강물에 부

서지는 반짝이는 햇살보다 참가자들의 얼굴에 번진 미소가 더 아름다웠다. 말 그대로 나누는 기쁨, 회복의 은혜, 함께하는 감동이 가득했다.

이번 거북이 마라톤 대회 참가비와 후원금

은 예수 믿고 노숙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강원도 고령지 채소재배 지역에 농지를 마련하는데 사용된다. 거북이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더 많은 농지를 확보하는 금보다 귀한 보석이었다.

나누는 기쁨도 벅찬데 큰 은혜까지 받은 참가자들이 있다. 김혜지 성도는 몸이 불편한 엄마 김춘자 성도를 휠체어에 태워 5km건기 코스를 완주했다. 달리는 내내 엄마와 딸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거북이 마라톤 대회는 김혜지 성도 모녀에게 형언할 수 없는 위로를 선물했다.

김춘자 성도는 16년 전 발을 헛디뎠다. 큰 위기는 넘겼지만 후유증으로 편마비가 왔다. 왼쪽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됐다. 그 순간부터 김춘자 성도의 자존감이 급격하게 낮아졌다.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딸이 엄마 돌보느라 힘들겠다는 말을 할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엄마가 자식을 힘들게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2주 전이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3부 예배를 드리던 김혜지 성도는 거북이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는 광고를 듣고 엄마 생각이 났다. 몸이 불편해서 예배를 텔레비전으로만 드리고, 밖에 자주 나가지 못하는 엄마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딸의 바람대로 거북이 마라톤 대회는 상상 그 이상의 치유와 회복을 선물해줬다.

“청년들이 밝게 웃으면서 엄마에게 하이파이브를 해주는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달리면서 잃었던 자신감과

용기를 되찾으신 것 같아요.”

밭 옆에 있던 김춘자 성도도 기쁨과 감격을 숨기지 못했다.

“달리는 모든 순간이 눈물 날 만큼 좋았어요. 이런 대회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어요.”

큰 은혜를 받은 주인공들이 또 있다. 순원들과 함께 출전한 여호수아공동체 최은희 순장도 그 주인공이다. 순장을 포함한 순원 네 명이 10km 코스를 함께 달렸다.

“순원들과 함께여서 끝까지 달릴 수 있었어요. 순원들과 함께 의미 있는 행사에 참가해서 소중한 추억을 쌓은 것이 정말 기뻐요.”

정유정 성도(서빙고공동체)는 실천하는 신앙을 전수하고자 아들과 함께 달렸다. 3대가 함께 달린 가족도 있다. 조부모부터 손주까지 3대가 함께 참석한 김호중, 조성성(양지 온누리교회) 성도 가족이 그 주인공이다.

“3대가 함께 걷고 뛰는 것 자체가 뜻 깊은 일인데 노숙인들의 재활까지 돕는다고 하니까 의미가 배가 된 것 같아요.”

“한 평 한 평이 모여 사랑의 기적일!”, “포기하지 않는 당신은 누군가의 도전이 된다.”

참가자들이 걷고 달리는 내내 청년 봉사자들이 들고 있는 주옥같은 응원글도 마음을 울렸다. 청년 봉사자들의 맑은 미소와 힘찬 응원까지 더해지니 이보다 좋을 순 없었다. 6개 성인공동체(강서, 동작, 서빙고, 성동광진, 이수, S브릿지)도 힘을 보탤다. 거북이 마라톤 참가자들에게 손수 준비한 풍성한 음식(육개장, 잔치국수, 어묵, 소떡소떡, 김밥 등)을 대접했다. 이처럼 돕는 손길로 거북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300여 명의 봉사자들도 숨은 주인공들이었다.

거북이 마라톤을 마치고



이주연 목사
(산마루교회)

다. 이것은 경쟁이 아니라 진정한 주 안에서 만남이었다. 세상이 쌓아 놓은 차별의 벽을 무너뜨리는 이웃사랑, 은혜의 물결이었다.

노숙인 찬양대원들은 개회 기도회의 찬양을 위해서 6시 30분부터 산마루교회에 모였다. 모두가 상기된 모습으로 늦는 이가 없었다. 모두 목청을 돋워 힘차게 연습했다. 개회 기도회에

서는 모두 밀짚모자를 쓰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를 기쁘게 찬양했다. 우리가 밀짚모자를 쓴 까닭은 ‘서울역전 밀짚모자 친구들’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개회식 때 이재훈 목사님과 나도 밀짚모자를 썼다. 이 사역의 동참자라는 기쁨 때문이었다.

노숙인 형제들은 가을 햇살 아래 강변 바람을 쐬며 걷고 달리면서 청년 도우미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기뻐했다. 한 노숙인 형제는 내게 달려와 안기며, 일생 처음으로 10킬로미터를 뛰었다고 자랑하며 기뻐했다. 그가 그렇게 밝은 얼굴로 웃는 것은 처음 보았다. 나도 덩달아 밝아졌다. 어린이들과 젊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온 가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걷고 달리는 모습은 ‘거북이 마라톤이 그리스도인 가정의 진정한 행복을 더욱 충만케 하는 것’임을 느끼면서 주께 감사를 드렸다.

시골장터 같은 바자회는 이웃사랑의 기쁨으

로 흥청거렸다. 호떡, 잔치국수, 국밥, 닭꼬치... 기름 냄새와 구수한 국물냄새 속에 거북이들의 마음은 더욱 풍족해졌다. 이내 이것을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믿음과 사랑 없이는 해낼 수 없음을 깨닫고 감탄했다.

나는 걷고 달리면서, 어린 시절 강변에서 모래에 손을 묻고 모래집을 지으며 부르던 노래가 생각났다.

“거북아, 거북아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사람들은 거북이가 헌 집을 새 집으로 만들어 주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나 보다. 그런데 실제로 거북이 마라톤에 참가한 모든 이들은 새 집을 지어주는 거북들이었다. 거북이 마라톤은 머리 돌 곳도 마음 돌 곳도 없는 분들에게 새 집, 곧 ‘산마루예수공동체’를 지어주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몇 해 전부터 서울역에서 나와 자립자활할 수 있는 농지 값을 한 평 두 평 모아왔다. 산마

루교회의 노숙인 사역은 노숙인들이 서울역에서 나오도록 하고, 주 안에서 거듭나고, 자립자활하도록 돕는 것이다. 마침내 그분들이 서울역 사람들을 돕고 자립자활토록 돕는 것이다. 현재 주의 인도하심으로 고령지 채소가 나는 농지를 계약하여 중도금까지는 기적처럼 지불했다. 연말까지 잔금을 내는 일만 남았다. 이 일에 모두가 거북이가 되어주었다. 거북이 마라톤으로 모이게 된 기금을 주께서 축사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는다.

거북이 마라톤은 온누리교회와 산마루교회가 교파와 대소형 교회의 벽을 넘어서서, 교회 일치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운동이다. 이웃사랑도 실천하는 살아있는 행함 있는 믿음이다. 제2회 거북이 마라톤은 주께서 이 가을 하늘 아래, 이 땅 위에서 펼쳐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며 기뻐하시리라고 나는 믿는다. 목사님과 온누리교회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에서 펼쳐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명화(名畵)와 함께 읽는 성경

산드로 보티첼리의 ‘겻세마네 동산의 기도’

“너희는 잠들지 말라 깨어나 기도하라!”

김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일.하.세. 아카데미 강사)

신앙인이 기도할 때 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덴마크의 한 대학 뇌과학자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이들은 루터교회의 독실한 크리스천 20명을 대상으로 네 종류의 글을 읽고 기도를 해보라고 한 다음

각자의 뇌를 f-MRI(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장치)로 스캔했다. 그들이 읽은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형화된 기도문(주기도문 등), 정형화되었지만 비종교적인 기도문(자장가 등), 즉흥적이면서 종교적인 기도문(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대화 등), 즉흥적이지만 비종교적인 기도문(산타클로스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내용 등)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형화된 기도가 아니라 즉흥적 기도를 할 때만 측면대상피질의 앞부분 측두엽과 두정엽이 활성화됐다. 이 부위는 대화를 할 때 활성화된다. 따라서 이 실험결과를 교인들이 기도를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 그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눅 3:22)는 소리가 들렸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다. 변화산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는 거룩한 변모를 하실 때에도 기도하셨다. 그때도 세례 받으실 때처럼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마 17:5)는 말씀이 들렸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 전에도 기도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스스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눅 23:34),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눅 23:46).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보낸 병사들에게 체포되기 전날 밤에도 당신이 어려울 때마다 와서 기도하고 묵상하셨던 겻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절박함’과 제자들의 ‘무신경’

오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이다. 인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번민과 고뇌 속에서 괴로워하셨다. 예수

님은 변화산에서의 거룩한 변모 사건 때 데리고 갔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다시 데리고 겻세마네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리고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세 번이나 어겼다. 육화하신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이 끝나가는 경각에서도 그들은 기도하기는커녕 단잠에 빠져 허우적댄 것이다.

엘 그레코, 파울로 베로네세, 안드레아 만테냐, 조반니 벨리니, 아리 세페르 등 겻세마

리가 묘사하는 겻세마네 동산은 사건의 비극성과는 무관하게 연극 무대처럼 작위적인 모습을 보인다. 점에서 다소 아쉬운 면은 있다. 그러나 “깨어나 기도하라!”고 재삼재삼 말씀하신 예수님의 당부를 잊고 잠에 빠진 세 제자의 모습은 무척이나 실감나게 그려냈다. 아마도 한 연배 위의 선배 화가 만테냐와 벨리니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특히 겻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과 제자들이 잠든 곳 윗부분을 날카롭게 깎아낸 나무 울타리를 쳐서 구분했다. 이로써 처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긴박함과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제자들의 무신경을 뚜렷하게 대비시킨다. 뾰족한 나무 울타리는 극도로



산드로 보티첼리가 그린 〈겻세마네 동산의 기도〉.

네에서 고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화가는 많다. 그 중에서 아리 세페르가 그린 ‘겻세마네 동산의 고뇌어린 기도’는 배경을 과감히 생략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예수님과 그를 위로하는 천사의 모습을 절절하게 묘사한 걸작이다.

오늘 말씀과 함께 묵상할 그림은 산드로 보티첼리가 그린 ‘겻세마네 동산의 기도’(1520년 경)이다. 보티첼리는 이탈리아 초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이다.

겻세마네는 예언자 에스겔과 스가랴가 하나님의 법을 세우기 위해서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메시아의 환상을 본 곳이다. 환상에서 보인 신전에서의 메시아는 위대한 영웅의 모습이다. 반면 겻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은 지극히 인간적인, 비극의 주인공 같은 모습이다. 그럼에도 보티첼

예민해진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상징하기도 한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의 원형’

기독교에서 잔(蠟)은 복합적인 상징을 가진다.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시 23:5),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도다”(시 116:3). 이처럼 시편에서의 잔은 ‘축복과 구원’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너 여호와의 손에서 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아”(사 51:17),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계 14:10)는 말씀에

서의 잔은 하나님의 ‘분노와 파멸’을 상징하기도 한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장에서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포도주를 권하셨다.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마 26:28).

최후의 만찬에서의 잔은 사람들의 ‘구속과 영생’을 상징하는 잔이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눅 22:42).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했던 겻세마네 동산에서의 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에게 다가올 ‘운명과 수난’을 상징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마 21:22).

겻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기도 중에 자신의 때가 왔음을 아셨다. 인간의 몸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무서운 고통과 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말이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눅 22:44).

다른 화가들은 엎드려 간구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먼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천사의 모습을 즐겨 그렸다. 그러나 보티첼리는 예수님이 기도를 끝냈을 때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직접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른 화가들이 많이 그린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병사들의 모습도 생략했다.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을 동시에 가졌던 예수님. 신으로서 자신의 운명을 알지만 인간의 몸으로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 앞에서 두려움의 피땀(血汗)을 흘리는 예수님을 하늘 아버지는 천사를 보내 위로하셨다. 보티첼리는 양팔을 가슴으로 모으고 아버지의 부름을 받은 천사의 위로를 받는 예수님의 겸손한 자세를 잘 그려내고 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의 원형(archetype)’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잠들지 말라. 깨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실존적 두려움을 외면하고 잠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은 오로지 제 문제에만 빠져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제자리를 맴도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잠들어서는 안 된다.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은 죽는 순간에도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깨어있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계 16:15).

우리는 늘 깨어 일어나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지구촌 이웃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인도네시아 긴급구호, 서부아프리카 차세대 사역



팔라우 베다니교회 이름으로 지역사회에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했다.

NGO 더멋진세상이 지구촌 이웃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선물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인도네시아 지진·쓰나미 피해지역에서 긴급구호 활동과 서부아프리카 차세대들을 위한 사역에 박차를 가했다.

인도네시아 지진·쓰나미 피해지역 긴급구호는 지난 11일부터 1박2일 동안 진행됐다. 팔루시 팔라우 마을 250여 가구 주민들에게 현지 교회 이름으로 식료품, 기저귀, 여성

용품, 구급약품 등을 전달했다. 앞으로 의료사역, 가옥 복구 등의 구호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일 서부아프리카 서부 모리타니 엘부라트 마을에 초등학교 준공식을 거행했다. 엘부라트 마을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90명이 학업을 시작한다. NGO 더멋진세상은 모리타니 엘부라트 마을에서 방과 후 교실, 더멋진마을 조성사업 등도 진행 할 예정이다.

김광동 장로(NGO 더멋진세상 대표)는 “모리타니 엘부라트 초등학교 학생들이 미래의 훌륭한 리더들로 자라나기를 기대한다”고 축복했다.

지난 2일에는 세네갈 본나바 마을 케르마람베 초등학교에 책걸상 80개를 증정했다. 책걸상이 없어 불편을 겪던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스페인어예배 후원행사 개최

10월 28일 오후 1시

스페인어예배가 오는 10월 28일 오후 1시 후원행사 ‘스페니쉬 아웃리치 및 선교 페스티벌(Spanish Outreach & Mission Festival)’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남미권 아웃리치 후원금 마련과 남미권에 살고 있는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는 중앙대학교 사범대학부속 고등학교 운동장(서울특별시 강남

구 도곡2동 선릉로 207)에서 스페인어예배와 스포츠 행사가 열리고, 2부는 도곡교육관 A동 기쁨홀에서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전통 음악공연이 진행된다.

네이라 목사(스페인어예배)는 “이번 행사는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남미권 사람들을 돕는 뜻 깊은 행사”라며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10-4924-2703

‘우리를 자유케하는 크리스천 재정원칙’

굼(GUM)예배 김의수 소장 재정 특강

지난 13일 드린 굼예배(GUM, 일. 하세. 사역팀)에서 김의수 센터장(돈격정없는우리집지원센터)이 ‘우리를 자유케하는 크리스천 재정원칙’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굼예배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정 특강은 지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매월 두 번째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서빙고 선교관 101호에서 진행된다.

이날 김의수 센터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한정된 소득 안에서 계획적인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을 잘 짜야 한다”면서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적인 지출을 한다면 튼튼한 재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황재명 목사(일.하세. 사역 담당)는 “돈의 노예가 되어선 안 된다”면서 “돈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 정현주 기자

CMChamber, 첫 음반 판매금 CGNTV 기부

음반 ‘Thanks’ 판매금 3천만 원, CD 4천장

음악회를 통해 CGNTV를 후원하는 프로젝트 체임버 오케스트라 CMChamber(Christian Musician Chamber)가 지난 10월 7일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날 판매한 첫 번째 프로젝트 음반 ‘Thanks’ 판매금 3천만 원 전액을 CGNTV에 기부한다. 또한 음반 4천 장도 함께 기부한다.

CMChamber가 만든 첫 번째 프로젝트 음반 ‘Thanks’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평생에 가는 길’ 등 주옥같은 찬송가 16곡이 수록되어 있다. 두란노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CMChamber(Christian Musician Chamber)는 ‘CGNTV체임버오케

스트라’로 시작했다가 이름을 CMChamber로 바꿔 활동하고 있다. CMChamber는 후원 회원과 연주 회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연주 회원은 국내 정상급 크리스천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CMChamber는 기독교문화선교를 위한 연주회 등을 기획하는 프로젝트 체임버로 후원과 재능기부로만 운영된다.

문의: 02-577-9686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김용성 화백의 성화전 ‘하나님의 선물’

29일까지 양재 햇불 트리니티 갤러리

김용성 화백의 성화전 ‘하나님의 선물’이 지난 11일부터 양재 온누리교회 햇불 트리니티 갤러리에서 개최되고 있다. 10월 29일까지 진행된다. 대표적인 작품은 ‘부르심’

(2013년 작, 30호), ‘내 마음의 고향’ (2017년 작, 30호), ‘보시기에 좋았더라’ (2016년 작, 20호) 등이다.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문의: 010-7289-0675

‘성경과 인문학’ 주제로 성지 답사

열린다성경 스터디 투어 참가자 모집

열린다성경 스터디 투어 ‘성경과 인문학’ 참가자를 모집한다.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는 세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터키-그리스 2019년 7월 26일에

서 8월 3일, 터키-그리스-산토리니 2019년 7월 26일에서 8월 4일, 이스라엘 2019년 7월 20일에서 26일까지 진행된다.

문의: 010-4902-1022

요셉술람 초청 세미나 개최

KIBI(Korea Israel Bible Institute)에서 주최하는 요셉 술람 초청세미나 ‘여호와와 절기와 에스겔 강해’가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개최된다.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비전홀,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한동홀,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02-792-7075-6

강동 사랑부 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강동 온누리교회 사랑부 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동쪽하늘 무지개’가 10월 27일 오후 4시 강동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이번 정

기연주회에서는 강동 사랑부 합창단과 강동 사랑챔버가 함께 공연한다.

문의: 02-475-9686

강동 온누리교회 탁구대회 개최

강동 온누리교회가 지난 14일 ‘2018 강동 온누리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탁구대회는 성도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40여 명의 성도들이 참가했다.

이날 노치형 목사(강동 온누리교회 담당)는 “경쟁보다 화합, 배려를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후쿠오카 기·도·제·목

- 10월 22일(월) 러브소나타 후쿠오카 집회에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도록
- 10월 23일(화) 일본 교회와 목회자들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 10월 24일(수) 초청장 받은 대상자들이 집회에서 복음을 진지하게 듣도록
- 10월 25일(목) 결신자들이 많이 생겨서 그들이 교회에 잘 인도되도록
- 10월 26일(금) 이재훈, 안도 리에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길
- 10월 27일(토) 섬기는 스태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 주시길
- 10월 28일(주일) 행사의 과정과 상황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제1217호 | 2018년 10월 21일(주일)

■ 스페인어예배를 섬기며



/ 김가영 성도(스페인어예배)

남미권 선교사가 되는 꿈

나는 스페인어를 5년 이상 공부했고, 남미 선교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스페인어 기도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곧 장 스페인어 기도모임에 참석했다.

초창기 스페인어 기도모임은 6명 정도 모이는 작은 모임이었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 모여 스페인어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난 9월 이 모임이 확장되어 스페인어예배가 됐다.

스페인어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미권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유학생이나 근로자들이다. 남미권 출신뿐만 아니라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한국인 성도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나를 스페인어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목상했다.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열정적인 성도는 아니었다. 그저 조용히 예배만 드렸었다. 내가 스페인어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섬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사명은 ‘땅 끝까지 제자를 삼는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소명은 제각각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소명과 비전에 맞게 중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거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남미권 선교사가 되는 꿈을 주셨다. 그래서 5년 동안 스페인어를 공부하게 하셨다. 스페인어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나는 스페인어예배에서 많은 남미권 사역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하나님은 남미권 선교사로서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

사역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때가 있다. 나라마다 문화적, 정서적 차이는 있지만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든 똑같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성경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어예배는 다양한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래서 문화적, 정서적 차이가 크다. 하지만 스페인어예배가 말씀으로 무장될 때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모임이 될 것이다.

문의: 010-4924-2703

■ 청소년부모성장학교를 섬기며



/ 김기훈 총무(청소년부모성장학교)

좋은 부모는 말보다 행동으로!

나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싶었다. 하지만 내 주위에는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배울 만한 곳이 없었다. 하나님께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했다.

“하나님!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세요.”

2년 전 청소년부모성장학교를 알게 됐다. 광고를 확인하자마자 중학생 아들과 함께 1기 청소년부모성장학교에 참가했다. 강의는 매우 인상 깊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를 먼저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부모성장학교는 부모반과 자녀반으로 나누어 강의가 진행된다. 부모반은 자녀와의 관계,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자녀반은 주로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활동이 진행된다.

참여자들에게는 청소년부모성장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삶에서 실천하도록 과제가 주어진다. 대부분의 내용은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등 자녀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활동들이

다. 난생처음 해보는 활동이라 어색하고 쑥스러웠다. 그렇지만 실습을 진행하면서 내 자신이 부족한 부모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동안 아들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했다. 용기 내 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나와 아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더욱 사랑하게 됐다.

나와 아들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스테프로 헌신했다. 나는 부모반 스테프로, 아들은 자녀반에서 헬퍼로 섬겼다. 스테프와 헬퍼의 역할은 참여자들이 앞으로 진행될 활동과 강의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것이다.

좋은 부모는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한다. 부모는 잔소리나 훈계가 아니라 올바른 행동을 직접 보여줘야 한다.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한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자녀교육에 매우 중요하다. 부부의 사랑은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부족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날까지 청소년부모성장학교를 열심히 섬길 것이다. 많은 가정의 청소년부모성장학교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소망한다.

■ 아프가니스탄 기도모임을 섬기며



/ 이신숙 집사(아프가니스탄 기도모임)

기도의 바통

아프가니스탄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다. 이슬람,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 등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나도 아프가니스탄 기도모임에 오기 전에는 아프가니스탄을 잘 알지 못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 지금도 정부군과 탈레반의 끊임없는 내전 가운데 있다. 술한 내전으로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이란에 약 200만 명, 파키스탄에 200만 명 상주해 있다. 그 외에도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 오랜 전쟁으로 경제는 파탄 났고, GDP의 1/3이 아편 경작으로 채워지고 있다.

故 하용조 목사님께서 2000년대 초 아프가니스탄 아웃리치를 다녀오신 이후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기도회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얼마 후 아프가니스탄 기도모임이 만들어졌다.

아프가니스탄 기도모임은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국가(정치, 경제, 동성애, 낙태법 폐지 반대, 교육, 가정, 안보, 이슬람 유입 반대

등), 한국 교회와 온누리교회(목회자, 리더십 등, 공동체, 일대일 제자양육, 순, 차세대, 교회 행사 등), 북한, 중국, 일본, 이슬람권 국가, 난민, 이스라엘 등 다양한 기도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기도모임에서는 지난해 EBS에서 방영한 ‘까칠남녀’라는 동성애 옹호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를 보고 집중적으로 기도했다. 우리가 기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로그램이 폐지되었다. 또한 필리핀 백영모 선교사님이 불법적으로 무기를 소지했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안티폴로시감옥(15평 이하의 공간에 150명 생활하는 감옥)에 구금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기도했다. 선교사님께서 최근 가석방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됐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린다.

우리가 다음세대에 물려 줄 유산이 무엇일까?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전수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교회와 나라를 기도로 지키셨다. 지금은 그분들이 소전하시거나 연로해지셨다. 그 기도의 바통을 누군가 받아야 한다.

■ 전도세미나를 듣고



/ 하라야마 이삭 목사(마츠모토중앙교회)

“이제 나가서 전도할 것이다”

지난 8월, 마츠모토복음촌교회에서 열린 전도세미나에 참가했다. 온누리교회 전도팀이 와서 5분전도와 여러 가지 전도 스킬을 전수했다. 강의만 듣고 끝나지 않았다. 공원으로 나가 전도 실습을 했다. 나는 집집마다 우편함에 전도지를 넣는다는지, 가끔 사람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한 적은 있었지만 노방전도를 나가서 전도 대상에게 영접기도까지 인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내가 온누리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 <최고의 행복>을 가지고 한 남성에게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영접기도까지 인도할 수 있었다. 그날 내가 속한 그룹은 5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 그 중에서 2명이 마지막까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까지 했다.

나는 그동안 시간을 들여서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답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5분전도세미나를 통해서 배운 내용은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전도방법에서는 알지 못한 새로운 것들이었다. 우선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

해야 한다. 그래야 짧은 시간에 영접기도까지 인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새롭고 놀라웠다.

일본인 전도에 있어서 ‘관계전도’는 복음을 전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어려움이 있다. 나는 이 부분이 일본 복음화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 세미나에서 배운 방법은 아주 효과적이며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짧은 시간에도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일본인 전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 교회는 그들이 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먼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 나는 이 사실을 이번 전도세미나를 통해 깨달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이다”라는 말씀이 지금도 뇌리에 깊이 박혀 있다.

온누리교회 전도팀을 만나게 된 것에 감사하다. 이곳에 꼭 필요한 세미나였다. 이제 나는 교회 안에서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나가서 전도할 것이다.

장로칼럼

아름다운 그 이름 ‘찬양사역공동체’



이정근 장로
(찬양사역공동체)

찬양사역공동체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1, 2, 3, 4부 성가대와 챔버, 싱어, 밴드팀에서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찬양사역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작지만 정체성과 비전이 분명한 공동체다. 많은 찬양사역자들이 영적인 양육과 돌

봄을 받고 있다.

찬양사역공동체 지체들은 예배와 신앙의 본질을 늘 깊이 묵상하고 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유념하고 있다. 그래서 기능적인 연습과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훈련도 함께 하고 있다.

찬양사역공동체는 일반 공동체와 달리 지체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모이는 게 쉽지 않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기를 힘쓰고 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주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거룩한 연합을 통해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실 찬양사역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찬양사역자 간에 서로 경쟁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하지만 찬양사역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갈등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찬양사역공동체는 찬양사역자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 받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저 받은, 값을 길 없는 사랑을 되돌려드려야 한다. 도무지 자력 없는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배의 문을 여는 역할을 허락하셨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어진 사역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 매우 감

사하다.

하지만 찬양사역자로서 겪는 어려움이 많다. 찬양사역자들은 예배의 전면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끔 인간적으로 연약한 모습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자리다 보니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기 쉽다. 그래서 찬양사역공동체는 더욱 깨어 서로 연합하고, 말씀과 기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김재석 목사님께서 찬양사역공동체를 만드시고 나에게 담당 장로로 섬겨달라고 부탁했을 때가 생각한다. 너무 감사했지만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 그 당시 김재석 목사님의 깊은 묵회 철학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사역을 부족하지만 헌신된 종으로서 섬길 것을 주님 앞에서 결단했다.

공동체는 성도들 간의 연합이고 관계이다.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찬양사역공동체는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울어준다. 서로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가족 같은 공동체다. 사랑으로 연합하고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 드린다.

현재 찬양사역공동체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민욱 목사님은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 열방을 향한 목사님의 사랑에 힘입어 찬양사역공동체에서는 3명의 선교사가 부탄, 곤명, 자카르타로 파송됐다. 3명의 선교사 모두 찬양사역공동체 안에서 훈련 받았다. 사역자로 가지 못하는 성도들은 아웃리치와 후원을 통해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다. 찬양사역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적 도구로 귀히 쓰임 받고 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영적 전쟁 전후방에서 승리하는 찬양사역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권사칼럼

믿음의 계보



원현숙 권사
(중중로공동체)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다. 남편은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 나와 결혼 한 이후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지금은 장로로서 장례사역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다. 나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모두 신실한 주의 자녀로 잘 살아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 집안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다.

특히 목사님이셨던 아버지의 사랑과 가난한 시골교회 목회자를 묵묵히 섬기신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현재 우리 가문의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아버지는 비록 가난한 시골교회 살림이었지만 사랑으로 자녀들과 성도들을 품어주셨다.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믿음의 본으로 우리 가정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

아버지가 강원도에 있는 교회를 맡고 계셨을 때다. 강원도의 겨울은 무척이나 추웠다. 그 추운 겨울날 아버지는 아침마다 내 신발을 불에 달궈 신긴 다음 자전거 뒤에 태워서 학교까지 데려다 주셨다. 그래서 겨울이면 아버지의 코는 늘 팔기코였다. 차갑고 추운 겨울바람을 거슬러 나를 태우고 가시는 아버지의 등은 한없이 넓고 따뜻했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사랑으로 보살피셨다. 마을에 자녀가 없는 할머니가 살고 계셨다. 아버지는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다. 장례까지 치러주셨다. 가난한 시골교회라 마냥 목회만 할 순 없었던 아버지는 여분의 땅을 개간해

서 농사를 짓기도 했다. 양봉도 했다. 그 덕분에 여기저기 벌에 쏘인 적도 많았다. 어머니는 겨울이면 김장을 몇 백 포기를 담그셨다. 부모님은 1남 4녀나 되는 자식들을 키우고,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보살피야 했다. 교회 살림도 도맡아야 했으니 그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들 모두를 대학까지 가르치셨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헌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남편에게도 감사한 마음뿐이다. 남편은 나를 만나기 전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 내가 결혼조건으로 교회를 다니라고 해서 그때부터 다녔다. 남편은 교회에 잘 다니겠다고 한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남편 마음에 예수가 없을 때부터 그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교회 다니는 시늉만 하던지, 다니다 말든지 했을 것이다. 그는 나보다 성실하게 교회에 나왔고 묵묵히 봉사에 임했다. 남편은 그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다. 나는 그런 남편이 너무나 고맙다. 우리 집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둥으로 가정을 섬겨주는 남편이 한없이 미쁘고 고마울 뿐이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돈을 물려주시지 않았다. 믿음과 사랑을 물려주셨다. 그것이 나와 남편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해졌다. 나는 자랑할 것이 믿음의 유산밖에 없다. 부모님의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린다. 나도 부모님께 받은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한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신앙에세이



문장원 전도사
(인천 온누리교회)

2006년 봄이었다. 지인이 나에게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소개해줬다. 그 교회는 매주 주일마다 교회가 아닌 흥대입구역 근처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매우 신기하고 의아했다. 호기심이 생겨 예배를 드린다는 곳에 갔다. 하지만 예배에 가기까지 두 가지 결단을 해야 했다. 하나는 집에서 가까운 교회가 아니라 먼 곳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집에서 예배장소까지 한 시간 이상 소요됐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내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야 했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 나이트클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배는 교회 건

물에서만 드려야 한다는 그릇된 생각이 깨져야 했다.

예배 장소에 도착하자 악기와 노랫소리가 들렸다. 건물 안은 매우 어두웠고 찌든 담배냄새와 술 냄새의 여운이 남아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여기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명 이상 되는 대학생들이 장소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삶을 위해, 세상을 향해 치열하게 기도하고 있었다. 그 공동체는 바로 Pole2공동체의 전신인 M2공동체였다.

M2공동체 소속 대학생들은 주일 아침 일찍부터 각종 장비를 예배장소로 옮겼다. 그들의 헌신은 자발적이었다. M2공동체는 그렇게 매주 주일 나이트클럽을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고 있었다. 나는 대학시절에 만난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해 교회와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예배를 세우는 사람들

있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세우는 사람들의 삶을 세워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다.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M2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세워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해주셨다. 온누리교회에서 예배사역과 대학청년부사역을 할 수 있는 특권도 허락해 주셨다. 내가 예배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셨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묵상했다. 동역자 중 몇몇은 목회자와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로 세움을 받았다. 그들은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다.

2016년부터 인천 온누리교회는 정해진 예배처소 없이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 송도컨벤시아, 연세대 국제캠퍼스, 인천글로벌캠퍼스,

인천대학교 등을 예배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인천 온누리교회에도 예배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다. 주일 아침마다 트럭으로 예배장비를 옮기는 간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한다. 예배장비를 세팅하는 대학청년부 지체들을 축복한다. 간식과 음료로 섬겨 주시는 집사님들을 축복한다. 중보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각 공동체 리더십을 축복한다. 예배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기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감사한 것은 최근 대학청년부 지체들이 예배를 세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던 그들이 삶의 목적과 소망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인천 온누리교회는 2020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9월 착공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세우면서 교회와 예배에 대한 관심이 변화되기를 소망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구원의 투구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엡 2:4-6).

허물로 죽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그분과 함께 연합시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우리를 죽게 하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고, 그분의 승천과 함께 우리를 하늘에 올려서 그분을 하늘에 앉히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늘에 앉히바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과거 시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 앉아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루어진 과거 시제를 사용했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너무나 분명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만큼 정교한 언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을 왜 모두 과거 시제로 표현했습니까?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행실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을 깨닫고,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우리가 착한 행

실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선한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감동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행동을 보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늘에 앉히바 되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화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원은 죽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사랑의 자녀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변화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만이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씌시다”(딤후 5:8).

여기 보면 전신갑주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했습니다. 구원 받은 자, 성도들에게는 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에 다가올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온전히 구속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앉히바 되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니다. 지식과 정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내용을 들었지만 이제는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된 것을 체험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지금은 병과 싸우고, 세상과 욕망과 싸우는 단계에 있지만, 온전히 자유케 되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죄와 완전히 결별하는 상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과 싸우는 영적 전쟁의 중요한 방어무기이자 공격무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닻과 같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히 6:19).

닻이 견고히 내려진 배가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듯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의 소망은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지키는 영혼의 닻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우리를 날마다 일깨우고,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단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장차 온전히 구속 받을 것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가십시오. 사탄이 세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축복을 견고하게 지키십시오.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으니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주어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생각해봅시다

부부갈등의 원인과 해결책



박성택 소장
(정신과 전문의,
연리지가족부부연구소)

“이제는 남편이 밥 먹는 모습도 싫어요. 속옷 차림으로 소파에 누워서 TV만 뚫어져라 보는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밥 주걱이라도 던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내가 아이들을 혼내는 소리가 들리면 괜히 제가 주눅이 들어요.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을 아이들에게 하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슬금슬금 집을 나가고 싶어져요. 아내랑 저는 성격이 너무 달라요.”

가정불화를 겪는 부부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다양하다. 우선 한 치 양보 없이 서로를 공격한다. 서로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배우자의 말과 행동에 인내심이 줄어든다. 나와 조금 다른 말과 행동을 하면 배우자를 공격하고,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생각한다. 성격 차이를 더 크게 느낀다. 본래 있었던 두 사람의 차이가 불화로 인해 불거져 나온 것인데 성격 차이 때문에 불화가 온 것으로 착각한다.

가정불화는 또 다른 증상으로도 나타난다. 내가 옳고 배우자가 잘못되었다는 함정에 빠진다. 아내는 친정이 옳고, 남편은 시댁이 옳다



고 생각하고 서로 공격한다. 배우자가 잘못되었고 골치덩어리인 배우자를 고쳐야 갈등이 끝날 것이라 여긴다. 당연히 배우자를 비난하고 상대방의 문제를 부각시킨다. 배우자와 성격 차이를 크게 느끼고, 내가 옳고 배우자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불화의 늪에 빠진 상태다. 화목하지 않은 부부들은 끝까지 배우자를 바꾸려고 한다. 그러나 배우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계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가정불화가 생기면 나타나는 또 다른 증상 중 하나가 우울증이다. 아내들이 우울증을 호소하며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는 말을 한다. 우울증은 남편에게도 찾아온다. 출근길에 가로수를 받아버리고 싶고, 저수지가 있으면 한들물을 뛰고 싶다는 남편들이 많다. 왜 그럴

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그런데 에덴동산에서 기슴 아픈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아담(남자)이 독처하고 있는 모습이였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다. 성인이 느끼는 ‘절대고독’을 보며 이를 달래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대상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도 과년한 성인의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 2:18).

그렇다. 하나님은 성인인 인간이 느끼는 절대고독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대상이 배우자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기에 부부에게 부모를 떠나 서로 연합할 것을 강조하셨다.

부부가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고 가정 불화가 쌓이게 되면 절대고독이 찾아온다

부부상담 중에 어느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

“선생님, 지금 싸우고 있지만 결혼 전 혼자 살 때보다 지금이 더 외로워요.”

부부가 연합하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 고독이다. 돕는 배필은 배우자에게 다가가서 연합하는 것을 말한다. 아파하면 같이 그 마음이 되어 주고,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해주면 된다. 우울해 하면 우울해하는 마음에 다가가서 함께 있어주면 된다. 그것이 연합이다.

최근 많은 부부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갈등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부부학교, 부부세미나, 부부캠프 등 부부갈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많아졌다.

아픔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용기 내라고 권하고 싶다. 부부갈등은 주변에 도움을 청하면 회복의 물꼬를 틀 수 있다. 우울한 사람을 우울한 상태로 내버려두면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 화가 난 사람에게 같이 화를 내거나 화난 채 내버려두면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친히 다가오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셨다. 상처받은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주셨다. 배우자를 고치려다가 행복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때다.

배우자가 아니라 관계방식을 바꿔라!

14 **온누리신론**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을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을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부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9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पाल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스페인어예배 14:00 도곡교육관 온유홀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톡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4: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펄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홀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2층 꿈아이를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요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함)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6 서빙고, 양지 한식당팀 정직원 모집 모집: 한식당 배식, 주방정리, 조리사 보조 자격: 경력부관(경력자 우대) 서류: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신앙간 증문 1부(선택) 접수: ohddong5@onnuri.org 문의: 오종한(02-3215-3101) 제72회 성령수련회 일시: 11월 17,18일 토, 주일 장소: ACTS29 비전빌리지 버스 출발: 서빙고 12:50 / 양재 13:30 문의: 서빙고(황보은선 권사 010-7120- 5221), 양재(김현옥 집사 010-8955- 3610)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QT세미나 일시: 10월 27일(토) 10:00~16:00 장소: 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 대상: 교회학교 교사와 목회자 (유치·유년·초등부) 신청: www.duranno.com/seminar 문의: 02-2078-3252	양 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를(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심방전도 요청 받음 양재 살림기도회 일정 안내 11월 5일까지는 통일아카데미로 대체 11월 12일부터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문의: 김정용 총무(010-5339-4522)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 오전 10:30 장소: 본관 B3층 JDS홀 양재 온누리교회 간사 모집 모집: 예배지원 및 행정업무(파트 간사 1명 서류: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문의: 02-570-7469 양재 커피숍, 정직원 모집 모집: 커피, 음료제조 및 매장관리 자격: 경력부관(동종업계 경력자 우대,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 우대) 서류: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신앙간증문 1부(선택) 접수: ohddong5@onnuri.org 문의: 오종한(02-3215-3101)
---	---	---	--

부 천
032.322.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7:00/2부 오전 9:00/3부 오전 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 4:00(대청예배)/6부 오후 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 5:20 분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9:00, 11:30 / 유치부-오전9:00, 11:30
유년부-오전9:00, 11:30 / 초등1부-오전9:00
초등2부-오전11:30 / 유초등부-오후2:00
중등부-오전11:30 / 고등부-오전9:0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예배 매주 수 오후 7:3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를
사랑부예배(장애인)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를
어린이영아예배(JEM) 오전 9:00 비전을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수 원
0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 주일예배
대학부 14:00 경찬홀, 청년부 15:00 사랑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4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초1~3학년), 11:30(초1~2학년) 사
랑홀 / 초등부 9:00(초4~6학년), 11:30(초3~4학
년) 경찬홀 / 소년부 11:30(초5~6학년) 믿음홀 /
중등부 9:00 비전을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어린이&중고등영어) 11:30 비전을

대 전
0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젊은예배 오후 2시 30분 분당
대학부 오후 2시 30분 누리홀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5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0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 / 4부(청년) 오후 4:00 분당
[다문화] 주일 11:00 / 4층 온유홀
주중예배
힌디어 토요일 19:00 5층 믿음홀 / 네팔어 토요
일 19:00 5층 소망홀 /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분당 /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 수요목양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9:00 기쁨홀

평 택
0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화요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0:00 비전을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여성예배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11:30 파워웨이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분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평택M센터 Love Hall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헬터

인 천
032.437.9686

※예배장소 및 시간에 대한 문의는 목회지원실(032-437-9686)로 연락바랍니다.
주일예배장소 10월
성인/차세대/사랑부예배
10/7, 14: 송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송도동 162-1)
10/21, 28: 송도 컨벤시아(송도동 6-1)
[중고등부 예배] 프리스페이스 3층(송도동 8-10)
[대학청년부, 국제예배] 제너셀 7층(송도동 179-1)
주중예배
수요여성/수요저녁/새벽예배 프리스페이스 3층
주일예배
성인예배 9시/11시 25분 오후 2시
차세대예배 영아/유치/유년/초등/중등/사랑부 11:20
꿈땅1부/고등부 9:00 해브리키즈 오후 2시
대학청년예배 오후 2시
몽골어예배 오후 2시

강 동
0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분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두란노홀
사랑부 오전 9:00 사랑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분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분당

양 지
0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드림씨드(영아) / 11:00 / 2층 드림씨드홀(분당
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0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00 / 지하1층 위더스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00 / 2층 이편젤러를
꿈이 자라는 땅(초등) / 11:00 / 2층 스크랜터를
파워웨이브(중·고등) / 11:0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CGNTV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10월 23일 첫 방송

내레이션: 장광, 성병숙, 명세빈, 심지호

예수님의 온기를 지닌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365일 곳곳에서 빛이 되는 우리들의 삶을 나눕니다.

1편 치열한 경쟁 속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는 노랑진 사람들



2편 젊은이들의 문화가 가득한 홍대에서 크리스천 문화를 전하는 청년들

